

‘과학기술 부총리’ 연내 제도화



노무현 대통령은 1월 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04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방침을 공식화하는 한편,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의 일자리 확보와 전문연구요원의 군복무 추가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학기술계의 숙원이던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에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올해 안에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과학기술정책 및 산업정책을 총체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부총리급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말했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연내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방침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부의 역할과 관련,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책임과 권한을 높여 나가고, 아울러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기획과 예산조정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가연구개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1967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처에서 1998년 부로 격상된 데 이어 6년만에 다시 한번 위상을 한층 강화시킬 기회를 맞게 되었다. 더불어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 등으로 분위기가 침체된 과학기술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는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창의적인 핵심인재가 산·학·연에 널리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선 미취업 석·박사 1천300명 이상을 연구 사업에 참여시켜 연구 잠재력을 키우고 일자리와도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나라가 동북아 연구개발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성숙단계에 들어선 연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과학을 꾸준히 진흥시키고,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며 “전문연구요원의 군복무기간 추가단축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올해가 과학기술 선진국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오명 과기부 장관, 이희범 산자부 장관, 김시중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리_류통은 기자 teryu@kofst.or.kr

|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 노무현 대통령 인사말씀 |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희망의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는 안팎으로 시련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북핵 문제, 이라크 전쟁, 사스 공포, 태풍 매미, SK 글로벌 사건, 카드 채 문제 등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천억 달러 가까운 수출을 이루었고 15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소비 침체와 투자 부진, 부동산 과열에 시달리면서도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정치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국회의 협조 속에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방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신약과 캡슐형 내시경 개발에 성공했고 과학기술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그리고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준비하고 수립해 놓은 정책들을 또박또박 실천해서 우리 경제를 재도약의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2만 달러 시대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키우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새해에도 강력한 과학기술 진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연구현장 몇 곳을 둘러보면서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의 확실한 가능성과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는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창의적인 핵심인재가 산·학·연에 널리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미취업 석박사 1천300여 명을 연구사업에 참여시켜 연구잠재력을 키우고 일자리와도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책임과 권한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기획과 조정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가연구개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동북아 연구개발 기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성숙단계에 들어선 연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지역별 R&D특화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의 우수한 이공계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나가며, R&D형 혁신클러스터와 지방의 과학기술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과학을 꾸준히 진흥시키고, 과학기술자의 자기진작,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 그리고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군 복무기간 추가단축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해가 과학기술 선진국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주도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은 단연 과학기술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와 경쟁해서 이겨야 우리 나라가 일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올 한해도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올해 거둔 보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정부 2만 달러 시대의 핵심전략은 과학기술입니다. 모든 역량을 과학기술혁신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